캔버스 가득 꽃 향기

신명자씨 개인전 내달 7일까지 무등갤러리

'기쁜날 I'

서양화가 신명자씨가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3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신씨는 이번 개인전에서 지난 2004년부터 작업해온 풍경, 정물, 인물화 등 작품 49점을 선보인다.

신씨는 '라일락', '기쁜날Ⅲ', '환희Ⅲ' 등 작품에서 대상의 존재감을 부드러운 필치와 능숙한 색채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나 숲, 계곡, 포구의 4계절을 담은 풍경화들은 담백한 화폭에 계절의 정취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신씨는 광주여고를 졸업한 뒤 고 양인옥 화백에게 그림을 배웠으며, 신기회 공모전, 목우회 공모전 등에서 수차례 입상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 모임 '그리메' 회원전

내일까지 광주 남구문예회관

김경모 작 '골목안 풍경'

흑백 사진 모임인 '그리메(회장 김경모)'가 25번째 회원전을 31일까지 광주 남구문예회관에서 갖는다. '그리메'는 그림자란 뜻의 옛말이다.

지난 81년 창립한 그리메는 매년 회원 개인별로 주제를 정해 작품을 전시하는 준(準) 개인전 성격의 회원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회원 11명이 참가해 '골목 안 풍경', '소록도', '시간여행' 등 11개 주제에 걸쳐 작품 90여점을 선보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내일 신춘가곡의 밤 광주문예회관

제32회 신춘가곡의 밤이 31일 오후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한국가곡연구회(회장 김백준)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소프라노 정애련·박계·이계화·구성희·이정미, 메조소프라노 강양은, 테너 김백호·최재훈, 바리톤 국선환·이은철·김백준씨가 출연, '또 한송이의 나의 모란' '뱃노래' '보리밭' '나물캐는 처녀' '남촌' '명태' 등 주옥같은 가곡을 들려준다. 062-670-231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앞으로 5년안에 동화 50권 쓸 계획"

전남대 초청강연 차 광주 온 '태백산맥' 작가 조 정 래 씨

"앞으로 5년안에 내 손자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동화 50권을 쓸겁니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63)씨가 29일 전남대 평생교육원 문화예술 아카데미의 초청으로 광주를 찾았다. 강연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조씨는 동화를 화두로 말문을 열었다. 초롱초롱한 눈빛이 육순의 나이를 무색케 할 정도로 활기차 보였다.

그는 "고교 때부터 동화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며 "태백산맥 3권에서 염상진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장면 등 작품 곳곳에 동화적인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내 영혼을 아이들에게 심고 싶은 게 작가의 욕심"

그는 또 "동화 작업은 내 영혼을 아이들에게 심고 싶은 작가의 욕심"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동화를 읽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태백산맥·아리랑·한강까지 읽게 되길 바란다는 것이다.

최근 문예 계간지 '실천문학' 봄호에 '한강' 이후 4년 만에 장편소설 '인간연습'을 연재한 조씨는 "비전향 장기수의 고뇌를 통해 15년이 넘도록 설명되지 않고 있는 사회주의 몰락의 원인을 문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했다"며 "소설을 쓴 두번째 이유는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남 갈등에 있다"고 말했다.

중단편 소설 '인간연습'은 여름호에서 선보이게 될 2회로 마무리 한 후 단행본으로 출간할 계획이다. 또한 태백산맥-아리랑-한강 연작에 이어 '인간연습'을 끝으로 분단문제에 관한 소설은 더 이상 쓰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작의 끝을 한국 현대사의 큰 획을 그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으로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물음에 조씨는 "직접 겪었던 작가들의 몫"이라며 "난 당시 서울에서 지내고 있었고 직접 보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비켜가고 싶다"고 말했다. 5·18 직후 광주를 방문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금남로 뒤편 YWCA 건물을 보존하지 않은 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통렬한 죄'라고 아쉬워했다.

조씨는 "당시 광주에 도착해서 맞닥뜨린 시민들은 하나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침묵하고 있었다"며 "그 무서운 침묵 속에 감춰진 저항을 느끼고 강한 문학적 감동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광주'는 직접 겪지 않아 작품화 비켜가고 싶어"

한편 '과거·현재·미래의 우리들의 발자취와 비전'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는 학생과 시민 300여명이 참석해 좌석 뿐 아니라 계단을 가득 메울 정도로 조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조씨는 강연에서 30권이 넘는 대하소설을 쓰게 된 배경과 우익단체들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10년 넘게 고생했던 사연,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등을 밝혔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오혜민 인턴기자 ceruleanstar@gmail.com

한국 출품 30점 고가 낙찰 … 홍콩 크리스티 경매서 두각

김동유 작 '마릴린먼로vs마오주석'

백남준 비디오 설치작품 'Enlightenment78 RPMs'(1990년)

'마릴린먼로 vs 마오주석' 3억2천300만원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작품 2억6천700만원

아시아 현대 미술 경매에 출품된 한국 미술 작품 32점 가운데 30점이 낙찰되는 등 컬렉터들이 한국작가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크리스티 한국사무소는 "홍콩 크리스티에서 28일 열린 경매에서 김동유(41)씨의 유화 '마릴린먼로 vs 마오주석'이 추정가(7만~10만 홍콩달러)의 25배가 넘는 258만4천 홍콩달러(한화 3억2천300만원)에 낙찰돼 한국 작품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한국작가 18명이 출품한 작품 32점 가운데 30점이 낙찰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김동유씨의 작품 '마릴린먼로 vs 마오주석'은 마오쩌둥의 얼굴을 작은 픽셀로 삼아 마릴린 먼로의 얼굴을 화면 가득 그린 팝아트적인 기법의 회화다.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작품 'Enlightenment 78 RPMs'(1990년)은 추정가 범위내인 2억6천700만원에 낙찰돼 한국 작품 중 2번째로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젊은 작가 최소영(26)의 작품 '광안교'는 추정가가 20만~28만홍콩 달러였으나 낙찰가는 156만 홍콩달러, 한화로는 1억9천500만원이었다.

유승호, 이지송, 안성하, 지용호, 김덕용, 이환권, 박성태, 배준성, 데비한, 문성식, 이용덕, 노상균, 함진, 김성진, 최영걸 등의 작품도 대부분 추정가를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특히 김동유와 백남준의 작품은 이날 경매 낙찰가 '톱 10' 가운데 6, 7위를 차지, 중국 현대미술 작가들 틈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아시아 작가 작품이었다.

배 지사장은 "한국작품이 이 정도로 성과를 거두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중국 작품의 가격에 비하면 아직 한국작품의 가격이 낮지만 한국 작품의 경매 참가회수가 늘면서 컬렉터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꾸준히 찾는 추세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흙속에 꽃이 피다

도예가 장경숙展 내일까지 무등갤러리 신관

'목련꽃 그늘아래서'

도예가 장경숙씨가 31일까지 무등갤러리 신관에서 '흙속에 꽃이 피다-흙과 불 그리고 그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도예전을 갖는다.

장씨는 도자에다 회화를 접목한 5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자신이 거쳤던 그림·도자 공부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

이 때문에 그의 도자 그림에는 의재 허백련 선생과 강연균 선생에게 배웠던 동·서양화의 바탕이 스며들어 있다.

작품 '흙 속에 꽃이 피다', '목련 꽃 그늘 아래서'는 수채화의 영상미와 도자의 중후감이 한데 어우러진다. 장씨는 도자의 타고난 성질을 그림을 통해 여인, 꽃, 산, 나무로 해석한다.

그는 색을 내는 재료에서도 변화를 추구했다. 이집트산 돌가루를 채색물감으로 사용해 기존의 안료보다 더 밝고 경쾌한 색상을 선보인다.

장씨는 전주대학교 산업미술과를 졸업한 뒤 일본 센다이축제 도예전, 뉴욕 Pottery 박람회에 출품했으며, 현재 광주도예원을 운영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